

# 민속자료 채록작업, 어디까지 와 있나

## 구비전승 부문 충실히 정리된 반면 생활전승 분야는 아직 미흡

민중의 생활습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뜻깊은 일이다. 동시대인의 삶을 규정짓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조건들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누대에 걸쳐 축적되고 걸러진 결과물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先人들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서의 '민속'은 역사의 한가운데 자리한다.

이 광범위한 민속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학은 그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채록한 현장자료가 민속학의 1차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들중 특히 현장자료는 채록작업이 요구하는 오랜 시간과 품으로, 아직까지 그 양이나 질에 있어 연구작업에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는 자료집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어 민속학의 기반을 두텁게 하고 있다.

### 설화 중심 구비전승자료집이 압도적

현재 가장 많은 자료가 집적돼 있는 것은 구비전승 분야. '구비문학'으로도 불리는 이 분야는 口傳되는 모든 문학양식을 포괄하고 있는데, 설화·민요·무가·판소리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속담과 수수께끼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민요부문의 자료집으로는 지난 1966년 제1권이 출간된 이래 1992년 전7권으로 완간된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집문당)이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전국의 민요를 채집해 그 주제와 명칭, 기능, 재래명칭을 참고로 노동요, 신앙성요, 내방요, 情戀요, 만가, 타령, 설화요 등으로 분류하고 채집지명과 문헌명을 밝혔다. 제6권과 제7권은 지역별로 구분해 실었는데 지금까지 간행된 단일 민요집으로는 가장 방대한 양을 수록하고 있다.

노동요의 일종인 農謠만을 집성한 이소라의 「한국의 농요」(민속원)도 이 분야의 귀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5권의 분량에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안산시, 경남 양산군, 전남 신성군, 전북 순창군, 충북 진천군 등 전국 각 지역의 농요를 채보해 실었다. 각 농요의 역사적·지역적 배경도 아울러 소개하는 한편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베는 소리 등 농요를 세분화해 해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민요의 범주에 포함돼 논의되는

**민속학은 그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존적 성격이 짙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채록한 현장자료가 민속학의 1차**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들 중**

**특히 현장자료는 채록작업이**

**요구하는 오랜 시간과 품으로,**

**아직까지 그 양이나 질에 있어**

**연구작업에 충분한 수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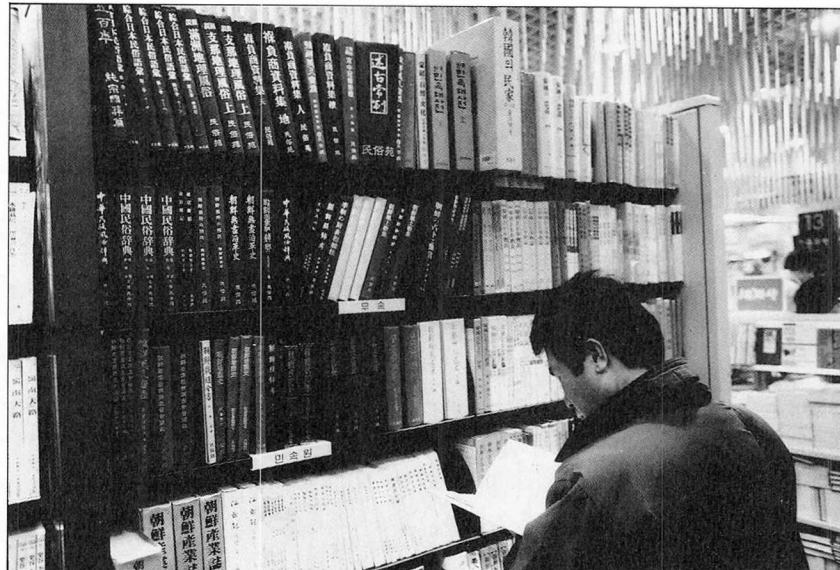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가 자료집으로는 기노을의 「한국만가집」(청림출판사)이 거의 유일하다. 상여를 메고 묘지를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매장후 흠을 다지며 부르는 노래, 그리고 봉분까지 마친 후 돌아오며 부르는 '山下地'까지 아우른 만가 165편을 채록한 이 만가집은 학계가 아닌 재야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호남, 제주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찬균의 「한국의 만가」(삼성출판사)는 만가의 정신사적 측면과 인접 국가의 만가와 비교 등 연구저술적 성격이 강하나, 부록으로 만가자료를 수록해 자료집으로서도 유용하다.

신화, 전설, 민담을 통칭하는 설화부문은 비교적 풍부한 문헌자료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채록작업도 실시된 바 있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우선 이 방면의 가장 방대한 자료집으로 정신헌화연구원이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꼽을 수 있다. 전82권으로 이뤄진 이 자료집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진 최초의 전국적인 구비문학 관계 조사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각 도별로 2개군씩을 대상으로 설화, 민요, 무가의 3개 분야로 나눠 채록했는데 각군의 개관과 조사대상 마을, 제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수록했다. 「한국설화유형분류집」과 「한국설화색인집」이 별책부록으로 첨가돼 있다.

개인자료집으로는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평민사)가 돋보인다. 현재 제9권까지 출간된 이 설화집은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의 설화도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수록된 자료 대부분이



고전국역사업과 함께 자료채록과 정리작업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학계의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1930년대의 구술을 채록한 것이어서 각 지방의 방언이 그대로 살아있고 순수 구전설화에 가깝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상도편을 보완해 전1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설화집성」(김영돈·현용준·현길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채록집으로 관심을 모은다.

설화부문의 각론에 해당하는 신화, 전설, 민담, 개별자료집으로는 「제주도 신화」(현용준, 서문당), 「한국인의 신화」(한상수, 정음사), 「한국의 신화」(황패강, 단국대출판부), 「한국의 신화」(김태곤·최윤식·김진영, 시인사), 「한국의 전설」(이신복, 을유문화사), 「한국전설대관」(임현식, 정영사),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영남의 전설」(유중선, 형설출판사),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한국의 민담」(최윤식, 시인사), 「한국민간전설」(한상수, 정음사), 「경북민담」(김광순, 형설출판사), 「전북민담」(최래옥, 형설출판사), 「남국의 민담」(진성기, 형설출판사), 「충청남도민담」(최윤식, 시인사) 등 적잖은 성과가 축적돼 있다.

무속부문에서는 김태곤의 「한국무가집」(집문당)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방대한 자료집으로 꼽힌다. 각 지방의 전형적 대표무속을 선정, 현장채록한 이 무속집은 각 무가마다 의식절차와 용도, 전문용어, 특수한 방언에 대한 해설과 주석을 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제1권은 서울, 부여, 동해안지역을, 제2권은 남부지역을, 제3권은 평양, 함흥, 화성지역을, 제4권은 영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길성의 「한국무속지」(아세아문화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의 무속자료집으로, 무당들의 인적사항과 入巫과정, 巫具 및 神堂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첨가해 지역적 특색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특징.

단일지역 자료집으로는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신구출판사)이 돋보이는데, 제주도 방언의 자세한 주석까지 덧붙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 세시풍속 등 생활전승 분야는 부진

전통적인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갖가지 기예전승과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의식·행사전승,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전승, 그리고 민간 신앙의 기저를 이루는 신앙전승 등 구비전승에 비해 한층 실생활에 가까운 풍속들도 민속학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 방면의 전국적 조사작업은 일찍이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실시된 바 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을 비롯, 민속예술,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을 망라해 조사한 결과 전47집의 총독부자료를 간행한 것.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당시 문공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에서 다시 전국의 민속을 조사, 각 도별 「전국민속종합보고서」(전12권)를 간행한 바 있다.

현재 총독부자료 가운데 일부분이 번역출간돼 자료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 박진열 옮김, 집문당)은 놀이명 총 항목수가 약 6400종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집으로, 놀이법 설명까지 첨가된 항목만도 1300종이 수록돼 있다. 제주도와 북한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15개 시도로 나누고, 이를 다시 226개 지방으로 분류해 오늘날의 행정단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

위에 맞춰 재편했다.

「조선의 占卜과 예언」(村山智順, 김희경 옮김, 동문선)은 상고시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점복풍속을 문헌자료와 현장답사를 토대로 조사수집해 분류한 자료집. 이와 함께 신앙전승 관련 자료집으로 우리나라의 토착신앙 가운데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모은 「조선의 귀신」(村山智順, 김희경 옮김, 동문선)이 있다. 귀신의 종류와 관련 학설, 귀신 쫓는 법 등을 각종 부적과 사진자료와 함께 분류, 정리했다.

세시풍속과 관련해서는 우선 「동국세시기」를 대표적인 문헌자료로 꼽을 수 있다. 현재 국역돼 나와 있는 「동국세시기」는 조선조 정조·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와 함께 비슷한 시기의 학자 유득공의 「경도잡기」,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등을 함께 묶어 당대의 세시풍속을 총망라해 보여준다. 「동국세시기」는 각 지방의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행사·풍속을 23항목으로 분류해 실고 있다.

심우성의 「한국의 민속놀이」(대광문화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씌어진 교양도서로 공기놀이, 그네뛰기, 그림자놀이, 널뛰기, 술래잡기, 고싸움, 달맞이, 연날리기 등 널리 알려진 민속놀이 29종을 놀이방법과 관련 이야기, 민요 등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방면의 자료집으로는 「한국풍속지」(양재연, 을유문화사), 「세시기」(이서구, 배영사),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한국식품대전」(이성우, 향문사), 「한국무신도」(김태곤, 열화당), 「민속춤」(정병호, 창림사) 등이 있다.

북한의 자료로는 북한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에서 조사를 주관하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펴낸 「조선민속풍습」(주강현 해체, 서광학술자료실)이 나와 있다. 의식주생활, 문화생활, 가족생활, 노동생활 등으로 분류된 이 자료집은 원문 삭제없이 북한표기법을 그대로 살려 현재 북한 민속학계의 편제와 기본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 순수자료집과 연구서 구분 모호해

민속학 전반을 아우른 사전류의 자료집으로는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이 대표적. 민간신앙, 의식주, 민간예술, 관혼상제, 민속놀이, 구비전승, 상업기술, 전통예술의 8개 분야로 나뉘어 약 1만여 항목을 수록했다. 최근

출간된 「민족생활어사전」(이훈중, 한길사)은 우리의 전통적 의식주 생활에서 활용됐던 다양한 일상어와 용품을 조사발굴해 용어풀이한 노작으로 평가된다. 총 3천여 표제어를 그 쓰임새와 유래,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각 대학 연구소나 박물관도 민속학 관계 자료집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문화사대계」, 「한국민속대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의 「민속학관계 문헌목록」을 비롯해, 개별지역 자료집인 목포대박물관의 「남해군의 문화유적」, 「영암군의 문화유적」,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울산 울주 민요집」,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의 「금산의 마을공동체 신앙」 등이 손꼽을 만하다.

이상과 같이 조선조 「동국세시기」에서부터 일제하 총독부 자료를 거쳐 주로 70년대 이후의 민속학 자료집을 일별해보면, 그간의 자료 채록작업이 구비전승 분야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예전승이나 생활전승 분야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이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도 구비문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지역과 해외이주민의 민속에 대한 조사작업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한편, 지금까지 축적된 민속학 관련서들은 오랜 채록작업의 결과인 순수자료집과 이를 1차 자료로 한 연구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자료축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전국역작업과 함께 자료 채록과 정리작업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학계의 풍토가 아직 조성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계의 입장에서는 채록작업이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비문학대계」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이나 산학협동 차원의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료 데이터망의 구축 등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연구자들을 위한 '종합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정소연 기자